

# “12·3 비상계엄 조기 해제 동력은 오월 정신”

서구아카데미강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尹 탄핵 선고 1주년 앞두고 소회 밝혀  
“사법개혁 3법 존중...다수결 능사아냐”  
공론장 필요 역설...공대 중요성도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주년을 앞두고 광주를 다시 찾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의 조기 해제 동력으로 ‘오월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광주 서구는 2일 오후 2시 청사내 들불홀에서 제127회 서구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문 전 헌법재판관이 나섰다 그의 저서 ‘호의에 대하여-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를 통해 150여명의 주민들과 소통했다.

그는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다가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 조기 해지에 대해 “시민들의 대응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이 자리하고 있



광주 서구가 2일 개최한 제127회 서구아카데미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의 저서 ‘호의에 대하여-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를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명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을 순 있었지만 불의한 권력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과 맥이 통한다고 본다”며 “무릎 꿇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시민들은 달려갔다”고 전했다.

책 제목인 ‘호의’의 의미도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진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군가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되돌려주는 마음이 쌓일 때 공동체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의는 특정 개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런 호의가 문화처럼 자리 잡아야

양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붙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는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혁이 다수결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공론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다수결에 의존한 개혁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언론과 시민사회, 노동조합의 토론 모두 공론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를 맡고 있는 문 전 재판관은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공대가 잘돼야 한다”며 “AI를 만들고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공학 분야가 살아야 고용과 세수, 지역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강연을 마쳤다. /이연상기자

김인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 선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2일 “김인영(사진) 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3차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정위기능 신경외과는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비롯해 편측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뇌전증, 파킨슨병 등 기능성 뇌질환을 수술로 치료하는 고난도 분야다.

김 교수는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 회장 역임하는 등 관련 분야를 이끌어온 전문가로, 화순전남대병원에서도 뇌종양 전문클리닉의 핵심 의료진으로 감마나이프 수술 등 정밀 치료를 선도하며 난치성 뇌질환 치료와 방사선수술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김인영 회장은 “학술 교류와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윤승현 전공의(지도교수 박수지)가 최우수연재상을 수상했다. /기수희기자



장흥소방, 소방장비 점검 중간평가

장흥소방서는 2일 “전날부터 3일까지 소방장비 관리상태 점검과 관련한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평가는 소방장비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대상은 소방차량과 더불어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등으로 실제 재난 현장에서 즉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평가 및 교육 내용은 ▲소방차량 관리상태·작업능력 점검 ▲개인안전장비 관리 상태·착용 적정성 확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장비 점검 기록·유지관리 체계 확인 ▲장비 운용 매뉴얼 숙지 여부 점검 등이다.

문병은 장흥소방서장은 “소방장비는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장비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욱기자



광주 북부소방, 광주에육원에 온정 나눔

광주 북부소방서는 2일 “화재 현장에서 도움을 받은 수혜자가 전하는 식품을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광주에육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식품은 한우양념불고기 30kg으로, 북부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감사의 마음이 아이들과 시설 종사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이번 나눔을 추진했다.

조현환 북부소방서장은 “현장에서 받은 감사의 마음이 다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결혼

▲김두환(화순군 산림과장)·운영경씨 장남 김인호(완도군청근, 오백만전 광주공고 교사)·이계순전(장성군청)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상무대로 글로리아웨딩홀 1층 리버이홀.

## 광주도시공사-근로자건강센터 ‘질병 예방’ 협약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의 보건 전문성과 안전경영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 상

담(직업트라우마센터 연계)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 자세 개선 지도 ▲혈압·체지방 등 건강 측정 및 위험 요인 관리 ▲산재 사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업트라우마 관리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프로그램을 공동 전개한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전문 보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질병 예방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1등 공기업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 코레일 광주본부, KTX 개통 22주년 고객감사 행사

코레일 광주본부는 2일 “전날 KTX개통 22주년을 맞아 고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참여행사와 함께 직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KTX 개통 22주년 고객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캘리그래피와 함께하는 철도여행’ 손글씨 보따, 고객들이 직접 작성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복열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과 광주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여행상품 할인권(1만원)을 지급했다.

이춘구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KTX개통 22주



년을 맞아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 광주119특수대응단, 합동대응 역량강화 연찬회

광주시 119특수대응단은 지난 1-2일 이틀간 전북 번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2026년 제1회 특수사고 대응 및 청렴도 향상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119특수대응단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에는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산악구조대 등 부서별 구조대원 20여명이 참석해 올해 주요 훈련 계획 공유, 부서별 우수 현장대응 사례 발표 등 구조 기술을 공유했다.

또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 직원 간 소통·공감 프로그램 등 공직자로서 청렴



실천을 결의했다. 119특수대응단은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연찬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변은진기자

## 담양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의료서비스 제공

담양농협은 “최근 담양농협 본점에서 담양읍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해피BUS데이’를 주제로 발대식과 함께 평양예술단 공연이 펼쳐졌으며, 네일아트 시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 상담, 점심 식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됐다.

의료서비스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

원이 영양 수액 등 양방 진료를, 이안경은 시력 검진과 돋보기안경을 각각 지원했다.

또한 대한의료봉사협의회는 치과 검진과 진료 상담, 건강관리를 안내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범진 조합장은 “농촌 왕진버스가 의료 기반이 부족한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 광양제철소, 9천만원 상당 학용품 희망키트 전달

광양제철소는 2일 “지난달 31일 광양시 금호동 어울림체육관에서 배려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 희망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2017년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매년 새학기 학용품 희망키트를 제작해 전달해 오고 있다. 지난 9년간 8천400여명에게 학용품 희망키트를 전달했으며, 누적 전달금액은 총 8억2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19곳의 아동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등 800여명의 배려계층 아이들에게 직원들이 손수 준비한 학용품 17종(총 9천만원)이 전달됐다.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앞으로도 미래세대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 영암경찰, 주민 참여 맞춤형 치안 모델 구축

영암경찰서는 2일 “지난 3월 한 달간 내·외국인 및 여성 1인 점주 등 213명을 대상으로 범죄 우려 지역 설문조사를 실시,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치안 모델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도내 외국인 밀집도 1위(22.6%) 지역으로 현장 맞춤형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4개 국어로 제작된 자체 설문지를 통해 상호읍 등 치안 수요 집중 지역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 결과 상호읍 등 6개 읍·면에서 19개소의 범죄 취약지를 발굴해 지자체에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불안감이 높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탄력순찰 구간으로 지



정해 방법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박용 경찰서장은 “이번에 구축한 주민 맞춤형 치안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하고 안전한 영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